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글로벌 축제 도약 ‘우뚛’

치유·건강브랜드 확립...외국인관광객 ↑
관광상품 개발·산업화 기반...경제 활성화

국내 최대 물축제로 주목받고 있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9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확인했다.

4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날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장흥은 지금 즐거움이 콤팩트!’이란 슬로건으로 열린 제18회 물축제는 장흥 물이 가진 치유와 건강 브랜드 확립, 장흥 관광상품의 개발과 산업화 기반을 다지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눈에 띄게 늘면서 글로벌화에 도전하는 물축제에 더욱 힘을 실었다.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부터 개막식 축하공연까지 함께한 태국 송크란 축제 예술팀의 공연도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연일 35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탐진강 수상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인기를 자랑했다.

방문객들은 지상 최대의 물싸움, 수상자전거, 우든보트, 바나나보트 등 치유와 건강을 상징하는 장흥의 물줄기를 맞으며 무더위를 식혔다.



제1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현장에서 열린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 모습.

〈장흥군 제공〉

상설 물놀이장과 바다 분수, 어린이 물놀이 전용공간도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 물축제의 화려한 밤은 장흥락페스티벌, 워터비트 EDM파티를 비롯한 각종 공연 프로그램으

로 채워졌다. 장흥락페스티벌에는 윤도현 밴드, 노브레인, 육중완 밴드 등 국내를 대표하는 락그룹이 무대에 올라 5시간 동안 폭발적인 사운드를 쏟아냈다.

이번 축제에서는 특산물의 홍보와 판매, 지역 상권과의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흥읍 중앙로 일부 구간의 차량을 통제하고 다양한 음식과 주류를 판매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을 거뒀다.

지역 상인들도 활기찬 야간의 분위기와 높아진 매출에 한껏 고무된 모습으로 손님맞이에 나섰다.

장흥 특산물과 장흥물을 재료로 한 음료 레시피를 개발해 판매하는 ‘슬라시 페스타’도 축제장에서 운영됐다.

축제장 곳곳에 대형 그늘막과 야의 테이블, 무료 샤워장을 만들고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장흥군은 물축제 운영에 따른 체험 수익금을 수해 피해 지역에 기부해 이재민들과 아픔을 나눴다. 축제 수익금 5천만원과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 수재의연금 모금액 1천 60여만원을 더해 약 6천60만원을 수해 피해지역에 기부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올해 물축제는 장흥 물의 브랜드 확립,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 이에 따른 산업화 기반 확보에 큰 성과를 거뒀다”며 “지역 상권과 연동해 발전하는 축제의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고 밝혔다. /정흥=노흥록 기자

김한중 장성군수, 현안 사업 국비 확보 ‘박차’

국회 방문...국립아열대자생식물원 등 건의

김한중 장성군수가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김한중 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서삼석 국회의원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국립아열대자생식물원 조성 ▲국립잔디연구소 건립 ▲대한민국명품순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확보를 건의했다.

‘국립아열대자생식물원’은 아열대식물 보존에 필요한 시설로 전시온실, 아열대자생식물보존원, 작물재래원종 보존원, 교육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삼계면에 건립 중인 국립아열대자물실증센터와 연계한다면 소득작물 개발 등 다양



김한중(오른쪽) 장성군수가 국비 확보를 위해 서삼석 국회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 국가 식물자원 보전역량 향상에 일조하며, 자생식물 활용 지역상생사업 다양화 등 정부정책과도 부합된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국립한국자생식물

원, 국립DMZ 자생식물원 두 곳이 있다.

‘국립잔디연구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잔디품종 개발 등 세계 잔디산업 선도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대한민국명품순기념관’은 산림청이 100대 명품순,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한 장성 축령산 편백숲에 조성되며 조림역사관, 명품순기념관, 산림홍보관 등으로 구성된다.

김한중 군수는 “지역의 미래는 물론 국가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군수는 면담 이후 국회 소통관 앞에서 열린 장성 농특산물 판촉행사에도 참석해 장성 먹거리를 서울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데 힘을 보탰다. /장성=김문태 기자

화순군, 맨발걷기 산책로 야간조명 설치

서라3차 아파트 뒤편-현대차 1.3km

화순군은 4일 “지난 1일 군민들의 야간 보행 안전과 쾌적한 산책 환경 조성을 위해 서라 3차 아파트 뒤편에서 현대자동차 신설도로까지 총 1.3km 구간에 야간조명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LED 경관조명 44본을 새롭게 설치했다. 해당 구간은 맨발걷기 산책로가 조성돼 있었지만, 그간 야간 조명시설이 부족해 늦은 오후 시간 이용에는 불편이 따랐다.

특히 대광 그린타운 2차 아파트에서 화순고등학교까지 기존 산책로 1km 구간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으나, 앞뒤 연결 구간에 조명이 없어 연속적인 야간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산책로 중간 구간을 중심으로 앞뒤 구간까지 조명시설을 재설치해 전체 2.3km 구간을 하나의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보완했으며, 이로써 야간 보행 환경이 대폭 개선됐다.

설치된 LED 경관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밤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이병철 기자

광양 마동근린공원 ‘꿈빛놀이터’ 개장

24일까지 운영...여름 물놀이 공간

광양시는 “최근 마동근린공원 내 ‘꿈빛놀이터’를 개장했다”고 4일 밝혔다.

개장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권항열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조현욱 광양시의회 부의장 등 지역 주요 인사 30여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물놀이장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마동근린공원 꿈빛놀이터는 오는 24일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점검과 정비를 위해 휴장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45분 운영 후 15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만 2세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이며, 6세 이하 유아는 보호자 동반이 필수다. 광양시민은 물론 타지역 방문객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놀이 공간은 어린이 놀이영역, 유아 놀이영역, 사계절 놀이영역 3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14명의 안전·운영·정소요원을 매일 현장에 상시 배치하고 있으며, 수질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즐



길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MY광양’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 선착순 입장도 가능하다.

정현숙 공원과장은 “마동근린공원 꿈빛놀이터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성된 여름철 놀이 공간”이라며 “신규 개장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인화 시장은 “꿈빛놀이터가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 아이들의 꿈과 창의력이 자라는 ‘놀면서 배우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는 광양시청 공원과(061-797-354, 2, 797-4723)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양홍렬 기자

‘고흥군민의 상’ 후보자 접수...내달 5일까지

고흥군은 4일 “오는 11월 1일 제1회 고흥군민의 날을 맞아 고흥군 최고의 영예인 ‘고흥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를 오는 9월 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흥군민의 상’은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워 고흥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랑스러운 군민 또는 출향 인사에게 수여되며 ▲교육문화·체육 ▲사회복지·산업 등 2개 부문에서 각 1인을 선정한다.

후보자는 읍·면장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추천서와 공적

임증 자료는 후보자의 주소지(출향 인사는 등 록기준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 수상자는 10월 중 개최 예정인 군민의 상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제1회 고흥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고(故) 천경자 화백(고흥읍), 고(故) 김일 프로레슬러(금산면), 전(前) 국가대표 축구선수 박지성(점암면)·김태영(도양읍), 박흥근 국회의원(도덕면) 등 48명의 군민 및 출향 인사가 ‘고흥군민의 상’을 수상해 고흥의 위상을 전국에 드높였다. /박현진 기자

여수시, 섬박람회 참가국 유치·입장권 판매 점검

9개국 참가 확정...21개국 협의 중

여수시는 “최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와 함께 박람회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해외 참가국 유치와 수익사업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참가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필리핀, 팔라우, 페루, 그리스, 동티모르, 프랑스 등 9개국이 확정됐으며 현재 태국, 미국, 스리랑카, 세이셸 등 21개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입장권 판매를 비롯한 수익사업도 본격 추

진되고 있다. 조직위는 새마을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지역단체를 비롯해 교육기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입장권 판촉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오는 9월 ‘D-365 행사’를 기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입장권 판매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입장권 판매 목표액은 96억원으로, 이는 총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사전 판매 전략이 중요한 만큼 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여수=김전선 기자